

##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김기례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The Study about Black Dress Image of Mordern Fashion

Gi Re Kim · Keum-Seok Ch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12. 4.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give new aesthetic values of black dress one of the important items in contemporary women's fashion. Through the work, to give the new aesthetic characteristics that women really needed can be found. This study was processed by fashion books and articles, literal material with fashion photos which were related fashion trend from 1920 to the pres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early 20th century, the black dress, which had simple form pursuing function like little black dress.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elegance and minimalism was represented by black dress, expressed erotic images together with see-through fabrics. In the end of the 20th century, body conscious style of black dress expressed sensual images of women. Modern black dress has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form: simple, close, exposure type and of the materials: matte, transparent and dazzling, etc. Simple type emphasizes feminine elegance, while close type and exposure type disclose woman body curve to express erotic images. Matte materials made black dress express feminine elegance while transparent materials and dazzling materials made black dress express erotic and sensual beaut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black dress were as followings: Sensualism expresses sexual attractiveness of women-close type and exposure type black dress and see-through materials and dazzling materials made black dress. Simplicity of extreme decoration effects are expressed through black dress having temperate and simple form. Femininity expresses traditional femininity to emphasize chaste, modest and elegant women images-the black dress, which is made of simple form, velvet and satin materials. Modernism combines black colour, which is called modern colour, with simplicity and function factors and pursues simple form. Ascetic practice controls mental and physical desire of the individuals, simple form without decoration covering up woman body and box type silhouette of black dress. Therefore, the study on image of the black dress, which have made appearance at modern fashion, is thought to help develop fashion trends and design, through which modern women express themselves and their beauty.

**Key words:** Sensualism, Simplicity, Femininity, Modernism, Asceticism; 관능성, 단순성, 여성성, 현대성, 금욕성

#### I. 서 론

20세기 초 여성 패션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과거의 패션이 다

시 유행하거나 전혀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창출해내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변화의 시발점은 남성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던 검정색을 여성복에 도입하여 여성복의 맨디즘의 혁명을 일으킨 샤넬의 등장

이다. 1926년 코코 샤넬은 당시 상복 이외에는 오직 남성적 권위와 힘을 상징하던 검정색을 단순한 디자인의 여성복에 도입한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를 발표하였다.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세상에 선보인 이후 끊임없는 패션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 수많은 여성들에게 사랑 받으며 패션의 고전(classic)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리틀 블랙 드레스는 검정색을 가장 현대적인 색으로 해석한 아르데코 운동과 기능주의 추구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세련미와 우아함의 대명사가 되었고 검정색 드레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표방하게 되었다.

검정색의 전통적 상징성은 자연물, 지상의 사방위와 신분과 계급, 죽음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지만, 복식사를 통해서 볼 때 14세기 버건디 궁정에서 쓰였던 검정색은 네델란드와 스페인의 카톨릭 문화에 수용되어 우아함과 엄격함을 나타내었고, 19세기에는 남성복의 주된 색으로 여겨지게 되었다(임정순, 1999). 여성복에 있어서 검정색 드레스는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 이후, 전통적인 검정색의 상복이 점차 패션너블한 검정색 드레스로 변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그동안 검정색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이고 암울한 이미지를 벗어나 여성복식에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검정색 드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복식사 서적에서 샤넬 스타일에 대한 연구와 함께 리틀 블랙 드레스가 지닌 의의(채금석, 2002)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과 복식디자인(송명희, 1996; 문혜정, 1998), 흑색의상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곽혜선, 1997)에서는 남성복과 여성복의 구분 없이 전체적인 검정색 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시대를 초월해 패션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검정색 드레스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복에 나타난 검정색 드레스의 다양한 이미지와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검정색 드레스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여하고, 현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보여진 검정색 의상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성복에서 보여지는 검정색 드레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1926년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를 기준으로 20세기 초반(1920~1930년대), 20세기 중반(1940~1960년대), 20

세기 후반(1970~현재)의 세 단계로 나누어 검정색 드레스가 사회·문화적 배경과 패션경향에 따라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디자이너들이 선보인 검정색 드레스의 형태와 소재를 통한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여 그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현대 검정색 드레스가 각 시대와 디자인 특징에 따라 표현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에 내포된 미적 특성을 범주화시켜 분석 정리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색채와 20세기 현대패션에 관한 국내외의 단행본과 간행물 및 선행 연구된 학위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사적고찰에 관한 시각자료를 제외한 검정색 드레스에 대한 시각자료는 각 시대의 패션경향을 알 수 있는 컬렉션지에 수록된 사진 자료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 II. 현대 블랙 드레스의 시대적 이미지

모든 빛과 색을 흡수하는 검정색은 신비, 정적, 엄숙성의 상징이다. 또한 검정색은 색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복식사에서 수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파버비렌(1989)에 의하면 검정색에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 느낌은 어두운 공간, 심적인 현상으로 중립, 방, 공허, 직접적 연상으로 애도, 불길함, 죽음, 억압, 객관적 인상으로 장례식, 주관적 연상으로 부정적 마음, 죽음 등을 연상시킨다고 한다.

또한 Valerie Mendes(1999)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검정색이 상복의 색으로 비애감을 나타내며 죽음과 파괴, 절망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처럼 무색인 검정색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검정색은 적의와 위협, 악과 부도덕의 의미를 상징하며 재앙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정색은 복식에 있어서 위엄이나 권위, 엄격함을 나타내고, 절제성과 우아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임정순, 1999).

중세 이래로 기독교에서 검정색은 악(evil)과 연관되어 왔기 때문에 ‘사탄의 검정’이라 불리운다. 그러나 검정색은 성직자의 금욕적인 복장과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성적 측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검정색은 금욕적 측면과 음란행위의 가능성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정색 의상은 성적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는 선입관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입지 않았다(곽혜

선, 1997). 검정색의 이러한 이미지와 함께 검정색의 상은 권위적이고 고요하며, 단조롭고 음울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포와 손실이라는 잠재적 성질로 인하여 검정색 의상이 에로틱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경우도 있다(Alison Lurie, 1986).

### 1. 20세기 초반

1920년대는 아르데코(Art-Deco)와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에 의한 기능주의 추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여성복식에서는 직선형과 원통형의 실루엣이 선보이면서 기능적이고 현대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션에 있어 리틀 블랙 드레스와 같은 검정색 의상이 기능적 형태로 디자인되어 당시 도시 여성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아이템이 되었다. 1926년 샤넬은 슈미즈 스타일의 심플한 라인의 리틀 블랙 드레스<사진 1>를 선보였는데, 이 드레스는 순수한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현대적인 복식의 아름다움을 제시했다(채금석, 2002). 리틀 블랙 드레스는 표면상으로 기능성과 합리성을 추구한 시대 흐름에 부흥하는 것이었지만 검정색의 수많은 이미지에 따라 검정색 드레스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리틀 블랙 드레스를 통해 절제된 시크를 표현했으며, 같은 검정색이라도 소재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낮 시간과 밤 시간을 위한 의상에 따라 소재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 미국 Vogue지에

의하면 '지금은 부자로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 단순한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를 가진 여성들은 검소하게 보이는 단순한 검정색 드레스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 여성복은 우아한 여성적 분위기가 강조되고 유행의 초점이 등(back)으로 옮겨감에 따라 비오네는 바이어스 재단을 이용한 유혹적인 검정색 드레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초현실주의가 탄생한 30년대에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 스기야 빠렐리가 관능적인 이미지의 검정색 의상을 선보였고, 그녀의 검정색 드레스는 자신의 환상적인 작품과 이미지들을 돋보이게 하였다(사진 2). 1937년 스기야는 검정색 수트와 검정색 드레스가 옷장 안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아이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은 초현실주의가 등장한 30년대에 여성복에 있어 검정색 드레스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20세기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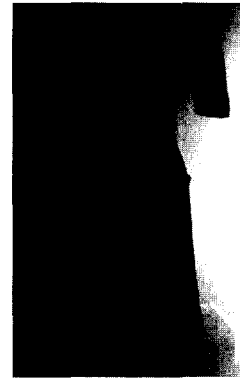
1940년대 초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남성적 실루엣의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였고, 그래픽 블랙의 등장으로 여성복에도 스타일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1942년 선보인 검정색 테이 드레스<사진 3>는 볼드 라펠과 왼쪽의 넓은 포켓으로 전시중의 밀리터리 룩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의 사용으로 엘레강스한 멋을 보여주고 있다. 종전 후에는 여성복에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나타났는데 심플한 리틀 블랙 드레스가 중요



<사진 1> 샤넬의 리틀블랙드레스  
「The Little Black Dress」



<사진 2> 스기야빠렐리의 드레스  
「Dressed in Black」



<사진 3> 밀리터리룩의 드레스  
「Dressed in Black」

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국 Vogue지(1944)에 의하면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리틀 블랙 드레스를 원한다. 왜냐하면 리틀 블랙 드레스는 어떤 분위기나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어울리는 최고의 옷이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것은 리틀 블랙 드레스가 중요한 저녁 약속을 위해 따로 성장(dress-up)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 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의 여성복은 여성미를 한껏 과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으며, 크리스찬 디오르는 수 많은 라인의 의상들을 선보이며 패션계를 이끌어 갔다. 이들 라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한 것으로 디오르에게 검정색은 매우 의미있는 색이었다. 그는 검정색이 가장 유용한 색으로 모든 색 중에서 가장 엘레강스하다고 말했다(Valerie Mendes, 2000). 그의 컬렉션에서 검정색이 선보이지 않은 적은 없었는데 검정색이 언제나 다양한 라인의 실루엣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오르는 상체는 피트되고 허리는 가늘게 강조된 뉴욕 스타일로 여성적인 우아함을 보여주는 검정색 드레스를 선보였다(사진4). 이 당시 가장 바람직한 리틀 블랙 드레스는 근무시간에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저녁에는 이브닝 드레스로 변화가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패션 잡지들은 바쁘지만 잘 차려입고 싶은 직장 여성들에게 검정색 드레스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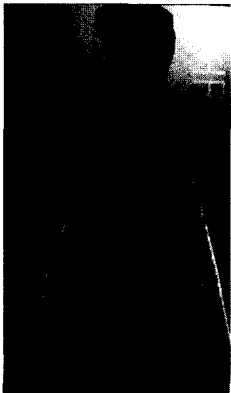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추구는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슬림한 라인이 인기를 얻었다. 미니멀리즘이 부각되면서 패션계에도 이를 반영한 미니 스커트가 선보였는데 슬림한 몸매를 선호하던 당시에 Mary Quant의 미니 스타일의 검정색 드레스<사진 5>는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또한 60년대 뉴욕의 댄스 마니아들의 댄스복장에서도 직선형의 단순하고 짧은 길이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유행하였다. 이 당시, 지방시의 뮤즈이기도 한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선보인 리틀 블랙 드레스는 매우 심플한 슬리브리스의 쉬스 드레스로 영화 역사속에서 가장 유명한 리틀 블랙 드레스가 되었다(사진6). 60년대의 성해방 물결과 함께 비치는 소재의 사용으로 시스루룩(see-through look)이 유행되었는데, 비치는 소재를 사용한 관능적인 리틀 블랙 드레스<사진 7>가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검정색 드레스는 20세기 중반 여성적인 엘레강스한 이미지와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모던하고 심플한 이미지를 내포하며 당시 패션을 통해 여성들이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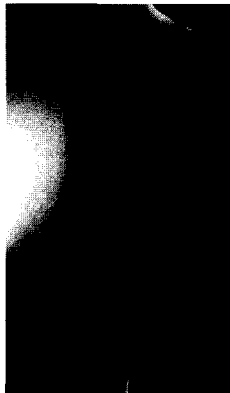
### 3. 20세기 후반

1970년대는 이전 시대만큼 리틀 블랙 드레스가 많이 선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디스코 댄스의 열풍으로 바디 컨셔스 스타일의 검정색 의상이 인기를 끌었고, 몸에 붙는 검정색 이브닝 드레스는 댄스 무대에 서기 위한 최고의 의상이었다.

80년대는 포스트 모던 패션이 과거의 모드를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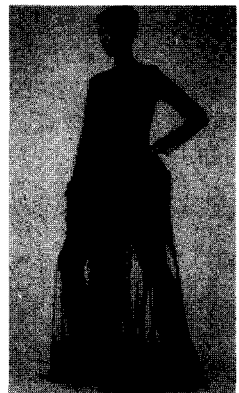
<사진 4> 크리스찬 디오르  
「Dressed in Black」



<사진 5> 메리퀀트의 미니스타일  
「Dressed in Black」



<사진 6> 지방시의 드레스  
www.imb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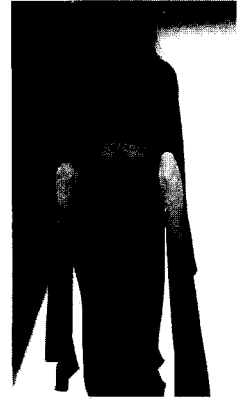
<사진 7> 시스루룩의 드레스  
이브생 로랑  
「Yves Saint Laurent」



<사진 8> Swanky Mode  
「Dressed in Black」



<사진 9> 금욕적 이미지의 드레스  
캐빈 클라인, 「Dressed in Black」



<사진 10> 요지야마모토의 드레스  
www.firstview.com

에 접목시키면서 아르데코의 검정색, 남성적 요소의 검정색, 동양적 요소로서의 검정색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송명희, 1996). 80년대 초에는 일본 디자이너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동양적인 의복개념에 토대를 둔 몸을 감싸는 형태의 비록이 선보였다. 이러한 형태에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을 사용해 특이한 금욕주의적 분위기의 재패니즘이 인기를 얻었고, 바디컨서스 스타일의 검정색 드레스가 유행하였다(사진 8).

90년대에 미니멀리즘을 반영한 패션은 시스루나 미니멀적 표현방법을 통해 인체를 노출하거나 라제리룩의 출연 등으로 여성의 성을 에로틱하고 퇴폐적인 관능미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수도사의 옷을 연상시켜 엄격하고 절제된 인상을 주는 검정색 드레스<사진9>와 수녀복처럼 목까지 올라오는 단순한 자루 형태의 검정색 드레스가 선보이기도 했다. 95년 가을 컬렉션에서는 카테일 액세서리와 함께 A.K.A 리틀 블랙 드레스가 선보였는데 이 드레스들은 20년대의 리틀 블랙 드레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것들이었다(Amy Holeman Edelman, 1997). 90년대는 패션에 있어서 더 이상 고정된 법칙이 제한되지 않음에 따라 의복에 대한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이제 이 미야게의 'Bouncing Dress'와 요지 야마모토의 검정색 드레스<사진10>는 정형화된 의복 구성을 벗어난 것들이었다. 결국, 검정색 드레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내포하며 현재까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가능한 아이템으로 여성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 III. 블랙 드레스에 나타난 미적 특징

#### 1. 블랙 드레스의 디자인 특징

##### 1) 형태

몬드리안은 가장 기본적인 색을 원색과 흑·회·백색으로 한정하여 이들 색의 사용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태와 형태의 단순함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의상에서 검정색이 복잡한 형태보다는 단순한 형태로 집중된다고 박혜선(1997)은 밝히고 있다. 또한 검정색은 형태를 한정시키기 때문에 신체의 볼륨을 살려주고, 여성의 곡선미에 명암을 드러내고, 검정색으로 강조된 형태는 의상의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또한, 색의 감정적 효과에서 검정색은 가장 구심적인 운동을 하는 후퇴색이며 수축색으로 신체에 밀착되는 검정색 의상의 실루엣은 여성의 신체 곡선을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몬드리안은 색의 조형적 자율성에서 검정색의 근접색은 밝고 명쾌함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즉, 검정색 의상을 입었을 때 피부색과 검정색의 대조로 착용자의 노출부위는 주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출형의 의상에서 검정색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블랙 드레스에 나타난 조형성을 색으로서 검정색이 가진 조형적 특성과 비교하여 단순형, 밀착형, 노출형으로 분류하였다.

##### (1) 단순형

검정색 드레스에 나타난 대표적 조형성의 하나로 단순형을 들 수 있다. 외형적으로 단순형의 특징은

슬더라인, 웨이스트 라인, 헴 라인에서의 폭이 크게 차이가 없는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한 사각형 실루엣으로 장식성을 배제한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또한 삼각형의 A라인 등에서 주로 표현되며 단색직물과 간결하고 단순한 직물패턴일 때 더욱 그 효과가 증대된다. 단순한 형태의 직선적 라인의 드레스는 1920년대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패션의 추구하고 함께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에는 단순하고 현대적이며 지적인 여성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복은 직선형 실루엣의 기능적이며 현대적인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2002년 Chanel이 발표한 검정색 드레스도<사진 11> 단순한 H라인의 스타일로 과도한 장식을 줄여 단순미, 자연미를 추구하고 있다.

(2) 밀착형

신체에 밀착되는 검정색 드레스는 바디라인이 여과없이 드러나며,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기능적인 면을 추구한다. 이처럼 신체에 밀착되어 몸매를 드러내는 형태는 전체적으로 길고 가는 실루엣으로 피티드(fitted) & 슬림(slim)라인이 있다. 따라서 패티코트가 필요없고 여성의 바디라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관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형태이다. 밀착형의 드레스는 1980년대의 바디컨셔스(body-conscious) 블랙의 유행과 함께 더욱 많이 선보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여성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고풍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바디 컨셔스 스타일은 은폐를 통해 신체의 곡선을 드러

내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송희정, 1999) 이러한 스타일에는 인체를 가늘고 신체의 선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몸에 피트되는 스판 소재나 라이크라 소재 등을 사용한다. 1996년 도나카란이 발표한 바디 컨셔스 스타일의 검정색 드레스<사진 12>는 비대칭의 네크라인과 심플한 라인으로 시크하면서도 관능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3) 노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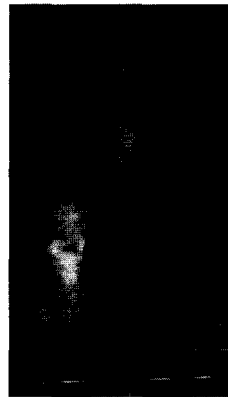
검정색 드레스에서 노출형의 드레스는 노출된 신체부위와 함께 검정색이 서로 대비되어 강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이러한 강한 시각적 효과는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하거나 동시에 성적 부위를 부각시킨 단순 노출형<사진 13>과 피부색과 검정색 드레스의 대비를 통해 검정색의 패턴화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곽혜선, 1997). 검정색의 패턴화는 페티쉬 패션을 하이 패션에 도입한 Azzedine Alaia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색의 강한 대비로 성적 충동을 자극시키는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두가지 형태 모두 신체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므로 육체 그 자체를 복식의 한 구성요소로 인지시켜 여성의 신체를 통한 관능적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은 여인의 목뒤와 등이 우아함의 극치라고 표현한다고 한다(곽혜선, 1997). 그래서 그들은 목뒤와 등을 강조하기 위해 등이 파인 드레스를 디자인 했는데, 1930년대에 이미 등이 깊게 파인 검정색 이브닝 드레스가 선보여 크게 유행 하였다. Dolce & Gabbana의 스트라이킹 백 드레스(striking back dress)<사진 14>는 몸에 타이트하



<사진 11> 단순형 샤넬 「Dressed in Black」



<사진 12> 밀착형 도나카란 www.firstview.com. 02/fall col.



<사진 13> 노출형 베르사체 www.firstview.com. 02/fall col.



<사진 14> 노출형 돌체앤가바나 www.firstview.com 01/fall

게 피트되며 시봉에서 힙부분까지 모두 드러내 관능미의 절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 2) 소재

### (1) 무광택 소재

광택소재의 검정색이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광택이 없는 검정색 소재는 완벽한 재단과 봉제를 통해 디자이너가 원하는 완벽한 실루엣을 표현해낼 수 있다. 또한, 몸에 밀착되는 무광택 소재의 검정색 드레스는 신축성 소재의 밀착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와는 구별되는 품위와 우아함을 갖는다. 이러한 소재는 댄디풍의 슈트나 피부색과 대비되어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는 검정색 드레스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검정색의 무광택 소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직물인데, 1950년대에 크리스찬 디오르를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정교한 봉제선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검정색 드레스를 선보이는데 이용하였다. 무광택 소재이지만 부드럽고 가볍고 유연한 느낌을 주는 크레이프와 조젯도 검정색 드레스의 소재로 이용되어 여성스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사진 15). 이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우면서 신축성이 있는 특징으로 인해 신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저지와 같은 소재도 검정색 드레스에 이용되고 있다. 크레이프나 저지와 같은 소재는 복잡한 오프 꾸뛰르적인 검정색 드레스보다는 단순한 스타일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신축성이 있는 무광택 소재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추구, 지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검정색 드레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 검정색과 연관이 높은 신축성 소재는 주로 밀착형을 추구하는데, 무광택 소재뿐만 아

니라 투명 소재, 광택 소재가 신축성을 가질 때 검정색의 매력도 강조되며 주목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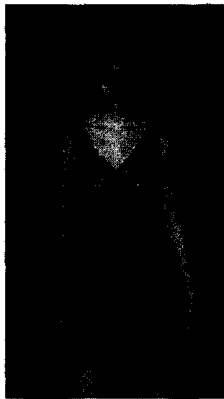
### (2) 투명소재

투명 소재(transparent)는 비치는 느낌으로 실이 얇아서 비치거나 짜임이 성글어서 그 틈 사이로 신체가 드러나 보이는 재질이다. 이 소재는 안감을 대든지 서로 다른 재질의 혼용으로 투명과 불투명의 대비를 통해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소재에는 크게 레이스와 투명 소재가 있다. 레이스는 16세기 중엽 생산되어 역사상 부유함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고급스럽고 여성스런 이미지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검정색 레이스의 란제리 룩이 유행되면서 검정색 레이스 소재의 드레스가 관능적 이미지로 부각되었다. 또한 시대가 흐를수록 검정색 레이스를 다른 소재와의 혼용으로 사용하던 것이 점차 전체를 레이스로 이용하는 대담한 스타일로 전개되고 있다(사진 16).

검정색의 투명 소재를 이용한 의상은 1960년대에 루디 건릭과 이브 생 로랑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러한 소재로는 얇아서 비치지만 시폰보다 무겁고 뻣뻣해 힘이 있는 느낌의 재질로 오간자, 보일 등이 있고, 하늘하늘한 느낌의 시폰, 검정색으로 코팅한 비닐 등이 있다. 또한 투명 소재인 오간자나 시폰은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를 엿보는 훔쳐보기(voyeurism)의 양태로 인해 완전한 노출보다도 더욱 자극적인 관능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소재들은 불투명한 소재들과의 혼용으로 신체의 최소 부위만을 가린 시스루(see-through)의 검정색 드레스에 사용되었으나 점차 그 최소 부위마저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들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다(사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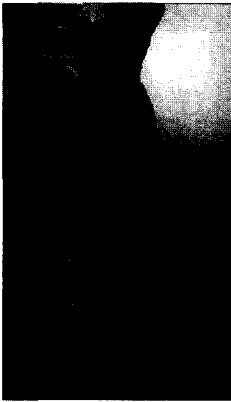
<사진 15> 무광택소재, Molyneux  
「Dressed in 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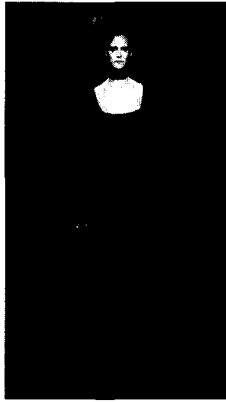
<사진 16> 투명소재, Lawrence Steele  
「Collections」 97/98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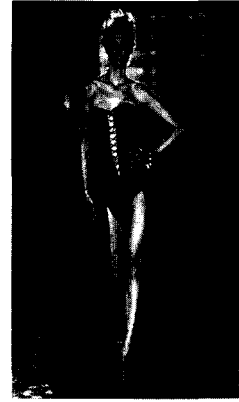
<사진 17> 시스루 룩, Fendi  
「Collections」 97/98 A/w



<사진 18> 광택소재, Lucian Lelong  
「Dressed in Black」



<사진 19> 광택소재, 이브 생 로랑  
www.firstview.com 02 fall col.



<사진 20> 광택소재  
줄리앙 맥도날드, 「Vogue」 May

(3) 광택소재

광택 소재(dazzling)는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므로 신체를 확대되어 보이게 하고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광택의 음영은 실루엣을 더욱 강조한다. 또한, 검정색의 광택 소재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우아하거나 관능적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검정색 드레스에 사용된 소재 중 광택을 지니는 것은 벨벳, 새틴, 타페타, 가죽 등이 있는데, 벨벳은 빛이 닿는 방식과 파일의 방향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그림자를 만들어 내며 대부분의 경우 품위있는 고전적인 느낌을 준다. 벨벳과 함께 새틴도 우아하고 고전적인 이미지를 주는 소재이다(사진 18, 19).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직물의 하나인 타페타는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표면을 지녀 약간의 볼륨감을 형성하며 풍성한 스타일의 드레스에 주로 사용된다. 80년대에는 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신체에 밀착되며 광택으로 인해 볼륨감을 최대한 강조해주는 검정색 가죽 소재가 널리 이용되었다. 2002년 Julien MacDonald는 허벅지까지 슬릿이 들어가 있는 가죽 드레스<사진 20>를 선보였는데, 가죽으로 된 앞을 끈으로 여러번 교차해 묶은 레이스 업(lace-up) 스타일의 가죽 코르셋 드레스는 퇴폐적이고 글래머러스한 90년대의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 블랙 드레스에 나타난 미적 특성

검정색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복의 비애성과 금욕과 검소의 의미로 착용된 2가지

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검정색 의상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이미지는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의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문혜정, 1998). 그러나, 우아성은 드레스라는 여성적 의복 코드에 검정색을 사용하여 여성성을 통한 우아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엄성은 여성복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전까진 검정색이 남성의 색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남성적 측면의 이미지라고 생각된다. 또한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상복에서 유래되었다 할지라도 비애의 이미지보다는 여성복에 검정색을 도입한 것은 현대화라는 의미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채금석, 2002),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성으로 볼때 검정색은 형태의 단순화를 통한 본질을(박혜원, 김여숙, 2001)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색 드레스에 표현되는 조형성을 미적 특성으로 범주화 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검정색의 이미지와 조형적 특징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관능성, 단순성, 여성성, 현대성, 금욕성으로 분류하였다.

1) 관능성

인체미를 살리기 위한 복식은 인간의 성적 특징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관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복식을 통해 인간의 육체를 부각시킨다. 의복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 상반된 심리를 나타내는데 신체를 노출하고 과시하며 관심을 끌려는 것과 한편으로는 신체를 은폐함과 동시에 여성의 인체미를 드러내 숨겨진 부분을 상기하거나 주의를 모음으로써 성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 복식은 여성의 신체 부위 중 특정 부위의 선택적인 노출과 은폐, 강조를 통해 남성의 시선을 끌려는 유혹의 원칙에 의해 조절된다(채금석, 2002).

이와 같이 관능성은 성적인 매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 검정색은 에로티시즘의 전통적인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개방 이전, 댄스파티에서 검정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성적으로 개방된 여성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검정색 의상은 일반적으로 과부를 상징하여, 즉 순수를 잃은 사람은 성적(性的) 금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인 호기심과 매력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상복과 같은 검정색 의상에 노출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바로 상대를 유혹하는 유니폼이 되는 것이다(박혜원, 김여숙, 2001). 결국 기본적인 여성복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드레스와 검정색의 결합은 관능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능성은 형태에 있어서는 인체를 은폐함과 동시에 곡선을 드러내는 밀착형과 성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노출형<사진 21>, 소재에 있어서는 투명 소재<사진 22>, 빛 반사로 신체의 볼륨감을 부각시키는 가죽과 같은 광택소재를 사용한 검정색 드레스에서 표현되고 있다.

## 2) 단순성

복식에서 단순성의 추구란 인위적인 구조선을 배제하고 재단, 봉제, 장식 등의 제작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여 단순화시킨 것을 말한다. 이것은 최소의 조형수단과 최소의 제작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板倉壽郎, 1989). 패션에서 단순성의 추구는 디자인 자체를 단순화하고, 옷의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작게 하거나 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검정색 드레스는 단순성이 추구하는 명확한 형태 표현과 단순성을 나타내기 가장 적합한 패션 코드였다. 1920년대 이후, 단순성을 추구한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를 포함하는 검정색 드레스는 최소한의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단순성을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복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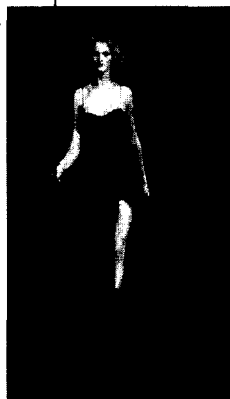
단순성은 극도로 장식 효과가 절제된 단순형, 무광택 소재와 광택소재를 사용한 드레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1995년 Donna Karan은 절제된 디자인의 심플한 검정색 드레스<사진 23>를 선보였는데,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60년대의 미니멀리즘이 강조된 듯한 작품으로 단순성을 추구하고 있다.

## 3) 여성성

여성성(femininity)은 품위있고 우아한, 고상한 등의 단정하면서 정숙한 여성다운 분위기를 가진 이미지로 여성 인체의 곡선미를 살려서 둥근 어깨선, 부풀린 가슴선, 잘록한 허리선 등을 강조한 것이다(사진 24). 여성성은 여성의 신체 매력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관능성과 함께 연관될 수 있을 것이나 노출과 은폐를 통해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관능성이라면, 여성성은 여성의 신체 매력을 강조함으로써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적 아름다움, 고상한 미(gorge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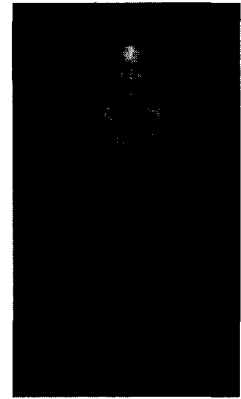
<사진 21> 관능성, 랄프 로렌  
www.firstview.com  
96 fall col.



<사진 22> 관능성, 베르사체  
www.firstview.com  
99 fall col.



<사진 23> 단순성, 도나카란  
www.firstview.com  
95 fall col.



<사진 24> 여성성  
이브생 로랑  
www.firstview.com 02 fall col.

가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여성성에서 엿볼 수 있는 우아미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검정색에 대해 미적인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검정색을 우아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르네상스 무렵부터 검정색에 부여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정색이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와 아내라는 가정내의 존재, 어머니의 역할과 같은 전통적 여성성이 팽배한 1950년대에 디오르의 뉴룩과 트라페즈 룩, 1990년대의 페미닌 룩에서 선보임으로써 여성성의 우아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김은희, 2002). 당시 뉴룩은 실크 벨벳과 울 소재를 사용한 검정색 드레스로 여성스런 우아함과 화려함을 최대한 표현했는데 이것은 엘레강스 시대<사진 25>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Pierre Berge, 1997). 여성성은 단순형과 노출형, 소재에 있어서는 무광택 소재와 벨벳과 새틴같은 광택소재를 사용한 드레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4) 현대성

검정색이 여성복에 있어 주로 상복의 색으로 여겨졌던 것에 반해 20세기에는 검정색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과잉장식을 벗어난 현대 패션에서 검정색은 심플리티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였다. 현대 여성패션에서 검정색의 도입은 '현대성=검정색'이라는 도식이 가능할 정도로 모더니티의 상징처럼 되어왔다(박혜원, 김여숙, 2001). 흑인예술의 등장으로 검정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검정색의 특성이 아르데코의 단순미를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내어 모더니즘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이해되었다. 그동안 서구 문화에 있어서 검정색의 상징적 의미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나 현대로 들어와 절대적 시크와 모던 표현의 미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결국 19세기에 와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검정색이 20세기에 들어서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색상으로 인식되면서 심플한 검정색 드레스는 현대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의상이 되었다. 따라서 검정색 드레스에서 이러한 현대성은 서로 다른 이질적 소재의 혼용이나 기하학적 면 분할, 또는 세련된 단순한 형태를 추구한 것에서 나타난다. 현대적 외형의(modern apperance) 대표적 예로 Fiore와 Kimle(1997, 미학의 이해:Understanding Aesthetics)에 따르면 women's Wear Daliy에 소개된 수 많은 사진들속에서 심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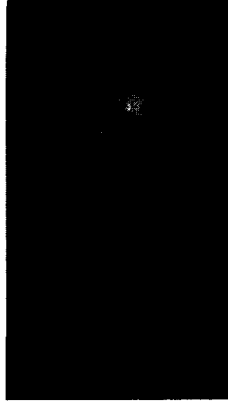
리틀 블랙 드레스를 모던의 대표적 상징으로 꼽고 있다(박혜원, 김여숙, 2001). 1997년 구찌는 목주위에 검정색의 에나멜 비닐소재를 사용하여 인공미가 가미된 도시적 분위기를 내포한 검정색 드레스를 선보였다(사진 26). Halston은 2002년 가슴부위를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컷 아웃한 단순한 형태의 검정색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형태에 모던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현대성은 단순형과 밀착형, 노출형 등 모든 형태에서 볼 수 있고, 소재에서도 무광택소재와 광택소재, 투명소재를 혼합한 모든 소재에서 볼 수 있다.

#### 5) 금욕성

금욕성(asceticism)은 개인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교중심의 봉건체제를 이루었던 비잔틴 제국의 의복에서 이러한 금욕성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 중세 비잔틴 복식은 절대신을 숭배하여 인간의 육체를 부정한 박스형 실루엣이 많았으며 검정색을 사용하여 엄숙하고 금욕적인 종교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금욕성을 반영하는 중세의 의상은 기독교적인 정숙의 의미에서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몸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주로 검정색이 사용되었다(문혜정, 1998). 이처럼 중세적 이미지의 복식에서 선보이는 검정색은 서구문화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절제를 통해 관능적인 생활을 거부하는 금욕성을 나타내고 있다. 금욕성은 강한 절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색 검정색 소재로 만들어진 심플한 드레스는 육체적인 것을 경멸하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정색 드레스에서 나타나는 금욕성은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욕구를 억제하는 것으로 인체를 은폐시키는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와 수수한 재질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신체의 곡선을 부정하는 빅 실루엣의 비구축적 라인의 검정색 드레스<사진 27>를 선보였는데, 이것은 신체를 거부하고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속적 욕망을 억제하는 듯한 금욕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98/99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크리스찬 디오르는 검정색의 벨벳소재를 사용하여 엄숙하고 금욕적인 종교적 이미지와 굵은 금속체인 목걸이로 현대적 이미지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사진 28).



<사진 25> 여성성  
이브생로랑  
「Yves Saint Laurent」



<사진 26> 현대성, 구제  
www.firstview.com  
97/98 A/W



<사진 27> 금욕성  
요지 야마 모토  
「Colezioni Donna」 98/99 A/W



<사진 28> 금욕성  
크리스찬디오르  
「Colezioni」 98/99 A/W

####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상징성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여성들에게 사랑 받는 검정색 드레스의 미적 특징을 분석하여 현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미적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검정색 드레스를 보면, 20세기 초반에는 단순하고 기능성을 추구한 단순성과 현대성을 추구한 드레스와 우아한 관능미를 추구한 검정색 드레스가 선보였다. 20세기 중반에는 단순성과 우아한 여성성, 관능적 측면이 강조된 검정색 드레스가 유행하였다. 20세기 후반에는 시스룩 소재와 바디컨셔스 스타일의 등장으로 관능적 이미지의 검정색 드레스와 단순성과 일본디자인들의 영향으로 금욕적 측면이 강조된 검정색 드레스가 선보였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 나타난 검정색 드레스는 각 시대의 패션 흐름에 따라 변화, 발전되며 여성복의 고전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검정색 드레스의 디자인 특징에 따른 이미지를 보면, 형태에 있어서 단순형은 여성적 우아함을 강조하고, 장식효과와 디테일에 따라 관능적이거나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밀착형과 노출형은 대부분이 여성의 신체 곡선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성적부위를 노출하므로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소재에 있어서 무광택 소재는 완벽한 실루엣으로 여성적 품위와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주며, 신축성 소재는 지적이고 현대

적인 이미지를 준다. 투명 소재는 리본과 주름같은 디테일을 줄 경우 로맨틱한 이미지를 주지만 신체가 드러나거나 밀착되는 형태에 사용될 경우 관능적 이미지가 주로 표현된다. 광택 소재는 빛에 의한 효과로 인해 벨벳과 새틴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가죽과 비닐은 성적인 면을 부각하는 관능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검정색 드레스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살펴보면, 관능성은 인체곡선을 드러내는 밀착형, 특정부위의 노출형과 투명소재, 광택소재를 사용하여 여성의 성적매력을 부각시킨 검정색 드레스에서 볼 수 있다. 단순성은 장식효과가 절제된 단순형과 무광택소재, 광택소재를 사용한 검정색 드레스에서 볼 수 있다. 여성성은 여성의 곡선미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우아한 여성 이미지를 강조, 단순형과 노출형, 벨벳과 새틴소재의 광택 소재와 무광택소재를 사용한 검정색 드레스에서 볼 수 있다. 현대성은 현대의 색으로 불리는 검정색과 단순성·기능성의 결합으로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 단순형, 밀착형, 노출형과 무광택소재, 광택소재, 투명소재를 사용한 검정색 드레스에서 볼 수 있다. 금욕성은 여성의 인체를 은폐시키는 무장식의 형태와 인체의 곡선을 부정한 박스형 실루엣의 단순형과 무광택 소재의 검정색 드레스에서 많이 볼 수 있다(표 1).

이와 같이 검정색 드레스는 형태와 소재의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미적 특징을 지니며 재창조되어 '변화'라는 패션의 특징 속에서도 여성복의 클래식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세련됨과 현대에 맞는 유행성을

<표 1> 현대 블랙 드레스의 미적 특성

	대표적인 시대 복식	디자인 특징	미적 이미지
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0년대 시스룩소재 등장</li> <li>1980년대 퇴폐적 관능미 대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착형: 바다라인이 드러난 형태</li> <li>노출형: 신체 부위의 노출</li> <li>광택소재: 벨벳, 실크, 가죽</li> <li>투명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로티시즘</li> <li>글래머룩</li> </ul>
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0년대 리틀 블랙 드레스</li> <li>1960년대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미니스타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형: 직사각형라인의 무장식 형태</li> <li>무광택소재      · 광택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니멀리즘</li> <li>심플함</li> </ul>
여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0년대 보수적 성향의 여성복</li> <li>1950년대 여성성이 강조된 디오르의 뉴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형</li> <li>노출형: 시농강조</li> <li>무광택소재: 모직물</li> <li>광택소재: 벨벳과 실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아함</li> <li>화려함</li> <li>고상한 미 (gorgeous)</li> </ul>
현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0년대 여성복에 김정색 사용, 기능성을 추구한 여성복의 현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형: 기하학적디자인, 기능성 추구</li> <li>밀착형                      · 노출형</li> <li>무광택소재                · 투명소재</li> <li>광택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크함</li> <li>심플함</li> </ul>
금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년대 정신 세계를 강조한 일본 디자이너들 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형: 육체부정, 인체를 축소시키고 은폐</li> <li>무광택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욕주의</li> <li>엄격함</li> <li>검소함</li> <li>절제</li> </ul>

지닌 김정색 드레스에 대한 본 연구는 패션을 통해 자아와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 여성들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패션 트렌드와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곽혜선. (1997). *후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복. (2000). *모피, 히피, 절면피 : 패션과 정치디자인 문 화비평2*. 서울: 안그라픽스.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태연. (1996). *중세풍 복식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메이트랜드 그레이브. (1982). *디자인과 색채*. 배만실 옮김. 서울: 이대출판사.  
 문혜정. (1998). *서양복식에 나타난 김정색의 이미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혜원, 김여숙. (2001). 리틀 블랙드레스의 활용을 통한 미적특성 연구. *한국 패션 비즈니스학회*, 5(2), 1-14.  
 베아테 슈미트, 잉그리트 로쎬. (2001). *패션의 클래식*. 황현숙 옮김. 도서출판 예경.  
 송명희. (1996).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희정. (1999). *패션의 에로티시즘*.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정순. (1999). *블랙의상의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에바헬러. (2000). *색의유희-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이야기*. 이영희 옮김. 예당출판사.  
 요하네스 이텐. (1976). *색채의 예술*. 김수역 옮김. 서울: 지구문화사.  
 조오순, 박혜원. (1999). *복식과 문화*. 창원대학교 출판부.  
 채금석. (2002). *현대복식미학* (개정판). 경춘사.  
 컬렉션 사진자료. (2002, 11. 2). *firstview*. 자료검색일 2002, 11. 2,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파버비렌. (1989). *색채심리*. 김화중 옮김. 서울: 동국출판사.  
 板倉壽郎. (1989). *복식미학*. 이현숙 옮김. 서울: 경춘사.  
 Alison Lurie. (1981). *The Language of Clothes*. An Owl Book, Henry Holt and Company: New York.  
 Amy Holman Edelman. (1997). *The Little Black Dress*. London, Aurum.  
 Pierre Berge. (1997). *Univers of Fashion: Yves Saint Laurent*. Univers Publishing & The Vendome Press.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1999). *20th Century Fashion*. Thames & Hudson Inc.  
 Valerie Mendes. (2000). *Dressed In Black*. Harry N. Abrams, Inc.  
 Vogue: Korea. (2002, 5).